

2018년 여전히 진행 중인 공연장 에티켓 문제

글_김준영(런던 통신원, 런던 ILOVESTAGE Ltd.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영국의 공연장은 한국의 구조와는 달리 객석과 무대의 근접성이 매우 높아 비유를 하자면 마치 달걀을 세워놓은 것 같은 모습이다. 다시 말해 같은 중극장 또는 대극장 규모라 하더라도 객석이 위로 높이 올라가는 반면 무대와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2층을 로얄 서클(Royal Circle) 또는 드레스 서클(Dress Circle)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무대 위 배우들보다 더 돋보이고자 하는 상류층 귀족(Royal)이 주로 2층 박스석(전층에서 다 보이는)에 앉아있었기에 이들과 함께 자리해야 하는 평민들은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어 정장(Dress)을 입어야 했던 관습이 있었고, 이는 극장사에서 흔히 언급되는 내용으로 영국 공연장에서는 이 같은 표현을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오래된 사진이나 영상에서 영국의 공연장 관객들은 언제나 정장 차림을 하고 있다. 가끔 영국으로 여행을 오시는 한국 분들은 공연장을 찾을 때 정장을 입어야 하는지 묻기도 하는데 혹시 “난 공연을 볼 때 정장을 입지 않으면 도무지 공연을 봐도 본 것 같지가 않아” 하시는 분들만 드레스와 정장을 준비하면 되겠다.

아무튼 이런 영국 공연장의 구조로 인해 2층이나 3층에 앉은 관객들이 좀 더 잘 보겠다고 몸을 앞으로 반복해서 기울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바로 뒤에 앉은 관객은 무대의 절반이 가려져 전혀 공연을 볼 수 없게 된다. 프리미엄 좌석이 아니라면 위치에 따른 좌석의 등급(평균 1~7등급)으로 다소 보이지 않는 장면이 있게 마련이다. 잘 보겠다고 과도하게 몸을 움직이거나 특히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위해 자제해야 할 영국 공연장 첫 에티켓이다.

현대 사회에서 공연 중 촬영을 한다든지, 출출해서 맥도날드의 치킨 너겟을 가방에 넣어와 하나씩 꺼내 먹는 걸 몰래 한다면 그걸 모두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그리고 특정 배우가 너무 좋아서 공연장을 찾은 젊은 관객들의 과도한 리액션과 뮤지컬 <맘마미아>를 보면서 신나게 노래를 따라 부르는 영국의 극성 아줌마 층이 주변 관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이 역시 돌발적인 행동이라 모두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모처럼 가족과 또는 연인들과

런던 공연장을 찾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한다면 영국 관객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위에 언급한 내용들이 모두 에티켓을 모르는 관객들의 무지에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세대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고정관념이 되는 것인지 또는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인지 2018년이 시작되는 시점에도 런던 공연계에선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엔 해를 넘기며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는 공연장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공연 중 핸드폰 사용자제를 요청한 이유로 뺏맞은 프로듀서



“고객은 왕이다”라는 서비스 업계의 명제는 언제나 통할까?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항공사들은 진상고객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예약 시스템에 넣어 체크인 시 해당 항공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탑승 거부에 사용해 왔고, 공연서비스 역시 주변 관객의 관극을 방해하는 요소가 발견되면 공연 중간에도 언제든지 (정중하게?) 밖으로 안내해 드린다. 공연 중 부모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아이들의 연령대를 놓고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도 같은 논리에서 출발한 사례이다.

최근 케빈 스페이시가 예술감독으로 재직 시 성희롱 문제가 발단이 되어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올드빅(Old Vic) 극장에서 불행하게

도 공연 프로듀서가 관객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뉴욕에서 온 아담 게일(Adam Gale)이라는 프로듀서인데, 올드빅에서 <크리스마스 캐럴(A Christmas Carol, 2017년 12월 4일 저녁 공연)>을 보는데 옆에 앉은 여성 관객이 1막이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핸드폰을 열어 사용하기에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반복적인 요청에도 핸드폰 사용이 이어지자 결국엔 극장의 어셔(Usher, 극장 내 관객을 안내하는 직원 통칭)에게 알려 공식 주의를 주었는데, 1막 후 휴식시간 그 여성의 남자친구(30대 중반)에게 자리에서 끌려 나와 주먹으로 한 방 맞게 된 것이다. 극장 측은 바로 경찰을 불렀고, 2막엔 그 커플이 극장에서 떠났지만 아담은 혹시 집에 가는 길에 봉변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해 공연을 즐길 수 없었다. 극장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런던에서, 심지어 폭력으로까지 이어진 점에 충격을 더했고 이번 사건으로 극장에서의 에티켓을 모르는 관객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를 함께 내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극장 측은 아담에게 다른 날 다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무료 티켓을 발급하고 보안 직원을 동행해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무사히 안내를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

웨스트엔드 공연장 음식 반입에 관한 논의



마사(Martha) 역활의 이멜다(Imelda Staunton) <Who's Afraid of Virginia Woolf?>
@Johan Perrson

작년 2월말 웨스트엔드의 해롤드 핀터(Harold Pinter) 극장에서 선보여 관심을 모았던 연극 <누가 버지니아울프를 두려워하는가? (Who's Afraid of Virginia Woolf?)>에서 공연 중 어떤 음식물도 객석반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발표가 있었다. 심지어 극장 내 바에서 판매되는 것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다 먹고 빈손으로 다시 착석을 해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술을 포함한 음료는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는 것으로 허용을 했었다. 당시 공연을 제작한 프로듀서 소냐 프리드먼(Sonia Friedman, 연극 <해리포터> 프로듀서로서 2017년 세계 공연계 영향력 1순위)은 특히 해당 공연은 몰속처럼 고요한 적막과 고도



의 진지함이 요구되는 장면이 많은 데 따른 결정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었고 또 그 공연에서 주연을 했던 이멜다 스탠튼(Imelda Staunton) 역시 “하루 중 고작 2시간 30분 공연에 소리 나는 과자나 칩스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를 반기기도 했었다.

해롤드 핀터 극장은 세계 공연계 1위 기업인 엠배서더 시어터 그룹(ATG)이 운영한다. 이 그룹은 세계 최초로 극장 좌석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해 지금까지 서비스 하고 있으니 특별한 공연환경에서 이루어지긴 했으나 당시 결정은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한편 지난 12월엔 이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같은 공연계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전 런던 극장협회 CEO이자, 프로듀서 겸 웨스트엔드 극장주(Nimax)인 니카번즈(Nica Burns)가 그 주인공이다. 그녀에 따르면 런던 공연계에서도 관극 중 스낵을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이젠 사회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내용을 규제하지 말고 극장의 자유로운 선택(어떤 스낵까지 허락할지)으로 두자는 것. 지난주부터 그녀가 소유한 극장에서는 어떤 종류의 음식이 공연에 방해가 되는지 실험을 시작했다고 한다. 과거엔 사람들이 때에 맞춰 규칙적으로 하루 세 번 음식을 취했으나 바쁜 현대인이 이동 중에 식사를 해결하는 모습도 이젠 더 이상 어색한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인데, 생각해 보면 정말 바쁜 일정에 식사를 거르고 공연을 볼까, 아니면 공연을 포기하고 식사를 할까 하는 고민이 없지는 않았다. 진정 관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티켓을 한 장이라도 더 팔아야 하는 극장주 또는 프로듀서의 입장이 반영된 것인지 헷갈리기도 하는 이 언급에 정말 이리다간 가까운 차이나타운에서 테이크 어웨이(Take Away) 음식을 들고 공연장을 드나드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극장 측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나 혼자 보는 것이 아니니 다른 관객과의 밸런스(Balance)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

사진_ILOVESTAGE DB 제공